

담양 황금마을·영암 구림마을

농·어촌 관광 대표명소 됐다

‘Rural-20 프로젝트’ 선정

담양군 수북면 황금마을과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농·어촌 관광 대표명소인 ‘루랄(Rural) 20’에 선정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완주 두억마을과 순창 고추장 익는마을이 선정됐다.

‘Rural-20 프로젝트’는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농·어촌 체험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국내 여행사와 연계한 테마별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각국 대사관과 국제회의의 참가자, 한국어학당, 원어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체험단을 모집해 해당지역을 여행하는 ‘Rural-20 체험단’ 및 홍보 기자단 운영, 4개 국어 홍보물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담양군은 지난해 대덕 무월마을에 이어 수북 황금마을 등 2개 체험마을이 대한민국 대표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북면 황금마을은 전남도 지정 유기농 생태마을로 유기농 쌈채소와 토마토 등 생산지로 유명하다.



담양군 수북면 황금마을에서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또한 남도 민속예술의 멋과 신명을 그대로 담아 전승되고 있는 마을 전통 농요인 ‘황금리 들노래’는 지난 2009년 전라남도 제46호 무형 문화재 단체로, 소리꾼 남귀희 씨는 문화재로 지정돼 마을 주민들이 계승·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 하천습지’가 있는 영산강 상류의 1등급 자연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 농업과 황금리 들노래, 전우치전 등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가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차별화해 체험마을 기반을 구축

할 계획이다.

월출산 서쪽 자락에 자리한 영암군 구림마을은 ‘호남관 하회마을’로 불리는 곳이다.

삼한시대부터 22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 마을은 전통 기와집과 아담한 정자, 향토 돌담과 가마터 등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주민 자치조직인 향약 대동계(大同契)가 45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구림마을은 백제시대 일본에 천자문을 전한 왕인박사와 풍수지리 대가인 신라 도선국사를 배출한 곳이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노정훈기자 moon@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인명구조함 시범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하상수)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관내 저수지와 방조제 등의 수리시설에 인명 구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영암지사는 안전사고 발생시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 가능한 장비인 구명조끼, 구명튜브, 로프 등을 비치

한 인명 구조함을 7곳에 시범 설치했다.

또한 전국에서 저수지 주변을 찾는 관광객, 지역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 내년에 는 위험시설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전남 중부권

생명공학 진단기술로 벼 병해충 정밀예찰

전남 농기원 워크숍서 전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내 벼 재배지에서 흰잎마름병, 밀가루 등 벼 병해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공학 진단기술을 이용한 벼 병해충 정밀 예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원장 박민수)은 최근 시·군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벼의 주요 병해충 진단 및 예찰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소개된 벼 흰잎마름병 유전자 진단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을 실용화한 기술이다. 병 진단을 8단계(병원균 분리→병원균 배양→DNA 추출

→PCR시약 조제→조제시약 분주→DNA 넣기→PCR반응→전기영동)에서 3단계(벼잎을 1×1cm크기로 잘라 증류수에 마쇄→PCR 반응→전기영동)로 단축시켰다.

이 기술은 3~4일 소요되던 것을 4시간 이내로 단축시켜 기존의 방법보다 간편하면서 빠르고 정밀한 진단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국 생명농업기술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새롭게 개발된 진단과 예찰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농업현장에 보다 빠르게 대응해 전남의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정남진권역 장항도 다목적센터 준공

장흥군 관산을 고마리 장항마을에 ‘정남진권역 장항도 다목적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장흥군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5억6000여만원을 들여 장항도 다목적센터를 건립했다.

장항도 다목적센터는 연면적 343.75㎡, 지상 2층 규모로 회의실 및 방관객 숙박시설,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다목적센터는 지역민 및 방문객에

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단체의 교육세미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금옥(58) 장항마을 개발위원장은 “정남진권역 주민들의 단결과 단합을 통해 살기좋은 농·어촌마을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명흠 군수는 “오는 2015년까지 진행될 320여억원 규모의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살기 좋은 장흥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희기자 kykim@



“을 고추농사 잘 돼야제”

강진군 병영면 들녘에서 한 농부가 이랑을 손질하며 고추농사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성 농기센터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설명회

장성군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을 통한 농산물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센터 농업인회관에서 관내 31개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소포장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농산물 소비성향 다양화에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365생’과 ‘드림빌’을 소개하고, 각 브랜드별 포장재 제작 지침 및 사업물 공동브랜드 소포장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부안 ‘제2농공단지’ 특혜 분양의혹

분양부지 78% 특정업체에 20% 더 깎아줘

90억 손실…郡 “고용·인구유입 기대” 해명

부안군이 행안면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특정업체만 할당에 분양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2008년부터 행안면 여러 일원에 사업비 286억1700만원을 들여 행안 제2농공단지(조성면적 34만5491㎡·분양면적 25만6530㎡)를 조성중이다.

군은 이곳에 자동차관련 제조업과 부안군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산업인 오디병을 비롯해 기타 신재생에너지 특구, 전락산업, 소망설비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분양부지의 78%에 해당하는 20만252㎡를 대규모 도계장이 포함된 닭 가공업체인 A사에 공단조성가의 40%에 분양, 90여억원의 땅값을 깎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육계 12만 마리와 삼계 12만 마리 토종닭 8만마리, 오리 5만마리 등 30만 마리의 생산 가공능력을 갖춘 공장을 오는 8월 완공할 예정이다.

반면 같은 농공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B사는 할인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B사를 포함한 기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똑같은 농공단지에 입주했는데도 투자 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A사보다 20%비싼 조성가의 60%(3.3㎡ 25만원)에 분양을 받아 일관성 없는 부안군 행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A사는 1451억원(업체측 주장)의 투자를 함에 따라 직접고용 517명, 간접고용 1510명 등 총 2027명에 이르고 인구유입과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돼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도내 최하위권인 부안군이 정상 분양가보다 밀도는 40%의 할당으로 분양하면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업체 이익만 챙겨주고, 군은 90억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군민들은 타 시·군과 비교 했을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특정업체 단지조성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A사는 군산시와 영광군으로부터 환경유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 받은바 있다.

주민 B씨(45·행안면)는 “하필 유해환경 유발하는 기업을 유치했다”며 “이는 주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관광레저사업을 외면하는 형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입주하게 될 A업체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설비를 시설하므로 환경오염 문제는 걱정 없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사업비 7800만원 투입

방사선 디지털영상 장비 도입



순창군이 방사선 디지털영상 처리장비(사진)를 도입,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의료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순창군은 최근 사업비 7800만원을 들여 방사선 디지털영상 처리장비와 치과 진단용 디지털 촬영장비를 도입했다.

군은 유방촬영용 디지털 영상저장 전송장치를 구입해 방사선 촬영과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치과진단용 디지털 파노라마 촬영장비도 최근 도입했다. 이 장비는 치아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 및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군산 향토음식 경연대회’ 21일 은파호수공원

군산시는 향토 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산 특산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요리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1일 은파호수공원에서 ‘2012년 군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군산 향토음식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물을 이용한 요리와 한국자산신탁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따라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계기로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호남 교통의 관문 역할과 함께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총 30팀에게 본선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해외 이주민의 한국전통 요리경연도 함께 열린다.

또 올의장아찌 빵·과자 만들기, 다문화 가정식 체험 등을 위한 시민 체험관과 향토 식재료, 꽃게장·청주·

장아찌 제조, 군산 맛집 전시관 및 홍보 시식관이 설치돼 오감만족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먹거리, 슬로 푸드 등 식품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경연대회가 군산의 향토 식문화와 지역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봄 돌함축제의 ‘새만금축제’를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 수산물 축제·구불길 전국 대축제·북지광생학습 엑스포·가요제 등 32개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 본격 시동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개발 시범사업에 탄력이 불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사업에 이달초 민간투자자의 개발제안서가 시에 제출돼 조만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익산역 복합환승센터(조감도) 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투자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엘코(주)와 한국자산신탁 등 모두 4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현대엘코(주)와 한국자산신탁(주) 등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2200억원을 민



간 투자해 총 부지면적 18만5000㎡ 중 선도시업 구역인 63,000㎡를 우선 개발한다. 또 지하 3층·지상 30층, 연면적 13만445㎡ 규모에 환승시설과 함께 업무시설, 비즈니스호텔,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제3차 사업제한 공모를 시행중에 있다. 절차가 완료되면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5월말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이번에 현대엘코와 한국자산신탁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따라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계기로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호남 교통의 관문 역할과 함께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단 신

전북도-원광대병원 정신보건센터 위탁 협약

전북도와 원광대 의과대학병원은 최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광역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원광대 의과대학병원은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및 지역정신 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18개 사

회복지 시설, 47개 정신 의료기관, 관련 민간시설 등을 연계, 정신보건 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 광역 정신보건센터 전주시 흡자 등에 마련되며, ▲자살 예방위기 관리팀 ▲정신건강 증진팀 ▲정신사회 재활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시 27일까지 ‘우리밀 제품 애용운동’

군산시는 오는 27일까지 우리밀 제품 애용운동을 펼친다.

이번 애용운동 기간동안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시중가격 보다 15%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은 ▲우리밀 라면(1상자 20개) ▲우리밀 세트(국수

등 6종·10개) 등이며, 가격은 2만 4000원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및 각 기관단체, 사회·종교 단체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063-450-4375)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남원시의회 23일까지 임시회

남원시의회(의장 조영연)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심사와 현직답사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인 16일은 제1차 본

회의를 개최해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011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 시립도서관 17~18일 어린이 인형극

김제 시립도서관(관장 김복두)은 제48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17~18일 이틀간 시립도서관내 5층 시청각실에서 어린이 인형극을 선보인다.

이번 인형극은 어머니들로 구성된 꿈초롱 인형극단을 초청해

창작동화를 재구성한 ‘까만날개 아기천사’와 ‘왕귀리의 모험’을 무대에 올린다.

관람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선착순 300여명 접수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news@